

# 제 544회 KMA 최고경영자조찬회 강연 요약

일시 : 2018년 11월 23일 (금) 06:40~09:00 장소 :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

## 2019년 경제전망 세미나 위기에서 기회로! 대한민국 경제 지형을 넓혀라!

경제·금융



곽수중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국제 정세



김지윤 |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Moderator)

소비 트렌드



이두영 | 닐슨 코리아 상무

### 1.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미약한 승리로 끝났다.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치,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임. 공화당, 민주당이 한국에 취하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는 거의 비슷함.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이란 측면에서 초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한국이 걱정해야 할 점은 중국과 미국의 파워 게임이 계속 될 것.

### 2.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하였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팀에서는 내년 약 2.4%의 경제 성장율을 예측함. 선진국 수준으로 접어든 한국의 경제 규모로 보았을 때는 최악의 숫자는 아님. 오히려 OECD 가입국들의 평균이라 볼 수 있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함. 내년도 2.4%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2.4%의 성장율을 가져갈 수 있는가. 만약 계속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함.

### 3. 저성장 시기,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경제적 관점)

현재 한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5G 산업은 모두 80년대에 시작되었음. 그 때 당시는 기업으로써 명운을 건 투자였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는 20년 간 투자해 온 성장 모멘텀이 부재함. 이제라도 기업들은 투자 해야함. 정부 주도의 투자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이 스스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주도 해야 함.

### 4. 저성장 시기,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소비-산업적 관점)

현재의 불황은 진정한 불황이라기 보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황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함. 때문에 지출을 통제하고, 프로모션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맞지 않음. 요즘 소비자들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음. 제품에 대한 이노베이션의 시대로 넘어가야 함. 다변화 된 터치 포인트에 대한 광고, 옴니채널 전략 등 세분화 된 니즈를 이해하고 찾는 촘촘한 전략이 필요함.

# 제 544회 KMA 최고경영자조찬회 강연 요약

일시 : 2018년 11월 23일 (금) 06:40~09:00 장소 :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

## 2019년 경제전망 세미나

위기에서 기회로! 대한민국 경제 지형을 넓혀라!



### 5. 인구 절벽과 액티브 시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소비를 키우는 것과, 소비할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것 중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주목은 후자임. 구매력이 있지만 그 동안 저평가 되어왔던 계층임. 액티브시니어의 니즈가 적절하게 반영된 제품이 있는지 고민해야 함. 그동안 액티브 시니어를 실버로 묶어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했던 사례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음. 더불어 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액티브 시니어는 본인의 소득을 자녀 계층에게 이전하는 경향이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 드라이브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함.

### 6. 10년 주기설, 정말 현실로 다가올 것인가?

미국 경제 호황을 이끌었던 IT 업종들의 요즘 주가가 심상치 않음. 7,8월 고점대비 15~20% 빠졌음. 미국의 IT산업이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파악해야 함. 또한 위기가 다가온다면 미국은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할 것인지, 외부적으로 충격파를 방출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함. 후자라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 중국의 경제 관계 등이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음. 민감하게 정보를 해석하고 준비해야 할 때임.



# 제 544회 KMA 최고경영자조찬회 현장스케치

일시 : 2018년 11월 23일 (금) 06:40~09:00 장소 :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

